## 2021년 제15회 한국영어영문학회 대학원생세미나 CALL FOR PAPERS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2:00~19:00

방식 ||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Zoom)

주제 Ⅱ 뉴노멀 시대의 인문학적 상상력

(The Humanities and Imagination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초청강연 ∥ 김용수 교수(한림대), 「영어영문학의 새로운 방법론: 디지털인문학」

주최 ∥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한국영어영문학회는 2007년부터 대학원생세미나를 개최해 영어영문학 및 관련 인문학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원생들의 지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5회 세미나는 6월 30일(수)에 「뉴노멀 시대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단어로 점철된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1918년 헨리 A. 와이즈 우드(Henry A. Wise Wood)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닥쳐올 변화를 천착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표현인 '뉴노멀'은, 이후 9.11 테러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위기상황이 해체하고 재구성할 '정상상태'의 의미를 가늠하는 데 거듭 사용되며 현대 인류문명을 정의하는 문구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뉴노멀'이 우리의 일상 속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계기는 가장 최근의 전 지구적 위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COVID-19)의 창궐이라 하겠습니다. 재택 근무와 온라인 수업의 도입은 우리의 경제와 교육 활동을 가상현실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고,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모임 가능한 인원 수의 제한, 지역 간 이동의 규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성의 기본 명제의 당위성을 재고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시에 대중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켜 국수주의나 인종차별, 젠더 문제, 가정폭력과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악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작금의 변화와 혼란은 코로나 감염증의 종식과 함께 사라지게 될까요? 이 변화와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the Black Death)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 난 때가 과학과 의학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21세기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 의 우리는 이전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달라진 세계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 이후의 우리는 과연 '새 로운 정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새로운 정상'이란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까요? 제15회 대학원생세미나 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인문학적 진단과 고찰, 그리고 '상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인문학적 상상력」은 영문학 및 영어학, 문화연구, 비평이론, 영어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발표문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지정주제와 다른 자유주제라도 인문학적인 사고와 고민이 요구되는 이 슈에 관한 글이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대학원생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안내 || 발표신청서(첨부) 이메일 접수 (yoanna0624@naver.com)

- 1. 발표 신청 마감: 2021년 5월 15일(토)
- 2. 발표 확정 안내: 2021년 5월 20일(목)
- 3. 발표 원고 마감: 2021년 6월 15일(화)
- 4. 사전 등록 기간: 2021년 6월 7일(월)~6월 27일(일)
- ※ 등록비 없음

## 온라인 세미나 참가안내 ||

- 사전등록 안내
- 참가자에 한해 참가링크 및 발표자료집을 이메일로 발송(6월 28일 예정)
- 온라인 세미나 특성상,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등록 해주십시오.
- 사전등록 웹페이지 주소: https://forms.gle/HakejZLhwkGfNnyH8
- 발표자 안내
- 발표원고(hwp 또는 MS word)를 마감일까지 이메일(yoanna0624@naver.com)로 제출
- 발표 시 발표 원고 또는 PPT 슬라이드를 화면 공유
- ※ 원고분량은 A4로 최대 8매이며, 분량에 상관없이 **발표시간(20분)**을 엄수해 주십시오.
- 청중 질의응답 안내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장 시 일괄 음소거 할 예정
- 질의응답 시 개별적으로 음소거 해제 후 질문, 또는 채팅을 통해 질문

제13대 한국영어영문학회 대학원생 위원회